조선일보 - 1928. 10. 25/ 1면/ 4단

東三省總司令部訪問

張學良氏會見記(三)

苦待하는 四十七名의會見候補者

◇奉天에서

李灌鎔

張氏도 新聞記者라고는 總司令된 뒤에 只今까지 한 번도 맛나지 안엇고 往往히 新聞紙에 나타나는 會見談『疑心스러운 것』이라고 陶氏는 말하엿다. 倫敦[런던]『타임스』記者 한 사람이 『야마도』호텔에서 一週間 묵다가 總司令部의 門도 보지 못하고 갓스며 日本 藤田(?)國際 聯盟代表를 總司令部 應接室에서 두 시간을 기다리게 하다가 맛나보지 안음으로 憤慨하야 갓다한다. 그런데 나는 總司令部까지는 如何間 드러왓스니 이만하여도 成功이겟지하고 속으로 우섯다. 나도 두 시간, 세 시간 긔다리게 하다가 畢竟 拒絶 當하면 엇지하나 하는 생각도 업지 안엇다.

十二時 三十分 頃에 朝鮮 宮中말로 하면 아마 『돕섯다』는 말인지 누가 와서 이 말이 잇자 一時에 북덕하더니 四五十 名이지나 씨러 스기로 陶氏더러 무러본즉 이 사람들이다. 會見할 사람이라고! 아래로는 小尉로부터 위로 省長까지 자세히 헤아려본즉 四十七 名이다! 다시 門 셋을 드러가 각구지 못한 荒蕪한 庭園하나를 지나서 四層 洋屋의 『록코코』式 建築이 잇다. 우리들이 이 집 玄關 압헤 움게줌게 서 잇슬 째 使者 한 명이 나와서 드러오라고 傳達하엿다. 應接室에 드러가서 우리들은 다시 기다리기 시작하엿다. 여긔는 家具와 其他 內部 修裝이다. 歐美 式이다. 四, 五 名이 이 방안에 드러안저서 總司令의 얼골을 못볼진댄 音樂이라도 좀 드럿스면 하는 듯이 안졋다. 나도 그 중 한사람으로 形便이 이러케 되니까 總司令이 무슨 戀人이나 되는 것가티 더욱더욱 맛나보고 십헛다. 그러나 時計를 쓰내본즉 발서 한 시간 지나갓스니 總司令이 이 사람들을 다 맛나보라면 해가 질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疲困할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來日 오라는 命令이 잇

슬는지도 모르고 또 來日 온다고 쏙 面會를 許諾할는지도 問題이다. 대관절 내가 무슨 까닭으로 이 젊은 사람을 그다지 맛나고 십허 하는가? 다른 사람들은 利害關係가 重大한 請도 하고자 하는 것이요, 或은 報告도 하고 或은 꾸지럼도 듯고 或은 졸르기도 하고 或은 總司令에게 緊急한 所聞도 傳하고자하야 그를 맛나고자 하거니와 나는 무슨 까닭으로 그를 맛나고자 하나? 東三省—三十六萬 方哩의 面積을 갓고 無限히 發展할 可能을 가진 處女 女沃土와 二千八百萬의 人口를 자랑하는 滿洲—最近 東洋史 土에 모든 國際政策의 焦點인 東三省—太平洋 問題 秘訣의 열쇠를 가진 滿洲의 主人公이요, 二十餘 年이나 쓰러온 中國統一□火의 焦點이요, 最近에 이르러 軍人으로써 또 政客으로써 가장 劇的으로 慘死한 張 大元帥의 事業을 繼承하야 統一되는 中國의 南北妥協劇의 主人公인—形容詞가 너무 길기는 하엿다만 何如間 東亞大陸 國際政界에 깁흔 關係를 가진 張學良 總司令을 新聞記者로서 한번 面會하고자 할 것은 自然한 일이다. 그래서 英國倫敦에서 險한 西伯利亞[시베리아]를 千辛萬苦를 다하면서라도 張 總司令을 맛나보러 오는 新聞記者도 잇섯고 美國서 水陸의 險路를 突破하고 張 總司令의 寫眞 한 개 으드러 달려드는 通信員도 잇는 것이다. 이 갓가운 京城의 新聞記者로서는 設令 面會를 拒絶 當한다 하드래도 큰 狼狽는 업슬 것이다…이럿케 생각할 때 한 頑强하게 생긴 體格이 드러왓다. 대단히 거만한 態度로 左右를 돌라볼 때 室內大衆은 一齊로 起立하야 溫恭히 敬意를 表하기로 무러본즉 熱河都督 湯玉麟氏라 한다. 五十은 너머쓸 테이요, 六十은 아직 되지못한 어대인지 좀 野蠻性이 뵈이는 武人이다. 그 野蠻性이 좁고 제키어진 이마에 잇나? 或 事物을 쑤를 뜻한 두 개 조쓰마한 눈에 잇나? 或 꼿챙이 가티 째친 수염에 잇나? 或 읏슥 올나간 언개우에 頭部를 옷독 올리어 논 듯한 짤본 목에 잇나? 어듸라고 쏙집어내일 수는 업지만 何如間 그러한이 뵈엿다. 奉天의 盛京時報에 잇든 園田氏의 最近 著作『支那 新人國記』에는 아래와 가티 湯氏의 歷史를 말한다.『湯玉麟은 奉天派의 武人 中 雜林的 變□漢으로 有名하다. 元來는 朝陽 出身이요, 奉天人은 아니다. 그 前 半生을 全혀 奉天에서 지나……奉天人이라 하는 것이다. 일즉이 綠林에 投하야 張作霖과 結託하야 그 決死□으로 遼西에 豪嘯 活躍하엿다. 日露戰(러일전쟁) 後 張作霖에 쌀어 歸順하자 奉天 前路 巡訪 馬隊管□가 되엿다』 그 후 第 二七 師團長의 地位를 탑내어 張作霖의 政敵과 陰謀하다가 如意치 못하고 돌이어 失職 逃去하야 張勳의 幕下에 들어가 일을 일으키랴다가 이것도 失敗하고 蒙古에 亡命하엿섯다. 그 후 張作霖은 뜻을 돌리어 湯氏를 다시 軍政에 登用하야 奉直 戰爭 中에 右路 巡防隊의 改編의 責을 갓게 되엇고 第 十一 師團長으로 昇任하엿다가 只

今은 熱河 都統이 된 것이다.

時計를 다시 쓰내본즉 一時 三十分이니 발서 三時 三十分을 기다리엇다. 밥분 사람이 이 以上 더 기다릴 수는 업다할 쌔 陶氏가 들어와 내게 面會가 許諾되엇다 함을 傳함으로 나는 쒸는 듯이 이러나서 總司令의 應接室로 向하엿다. 室內 修裝은 보잘 것 업고 가장 내 눈에 씨이는 것은 總司令의 容貌와 衣服이엿다. 깁픈 玉色 뮈명 두루맥이 입은 一個 靑年을 보고 그를 總司令으로 認定하기를 躊躇하엿다. 容貌는 초죄하고 머리는 정돈되지 안코 行動은 自由의 程度를 지나는 二十 歲 좀 넌어 보엿다. (當年 二十八 歲)

◇特派員에게 준 張學良氏의 最近 寫眞◇